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강경희 **

국문 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 하는데 있다. 제주도 연구 자료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NII학술정보내비게이터(CiNii)와 국립국회도서관, 과학연구비조성사업DB(KAKEN) 등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키워드 '제주', '탐라'로 검색한 후 활용하였다. 분야별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등으로, 주제 대상별로는 제일제주인 연구, 제주4·3 연구, 오키나와에서의 제주연구, 박사 논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 목록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렇게 대분류한 연구 목록을 바탕으로 연대별, 문헌별,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의 제주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학문 분야별로는 인문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있으며, 주제별로는 제주의 역사와 고고학, 제주의 자연 환경과 생활문화, 민속 문화, 지역 개발, 관광, 경제, 제일제주인, 제주4·3 등 인문적·사회적·자연적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주제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대별로는 자연과학 분야

* 이 글은 지난 2018년 6월 21일~22일 개최된 (사)제주학회 창립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주신 오상학 교수와 전경수 교수의 귀중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이외의 다른 분야는 1990년대 이후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고, 문헌별로는 학술지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학'이 지역학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제주 관련 연구 자료의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학문적·시사적 가치 있는 연구 자료들을 번역 소개,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내외에서 후세대들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제주도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일본 내 제주도 연구, 탐라, NII학술정보내비게이터(CiNii), 국립국회도서관, 과학연구비조성사업DB(KAKEN)

I. 들어가며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에 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 지질, 동식물, 기상, 도세(島勢), 농업, 수산, 축산, 어업, 인구, 생활상태 등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 기록에서 비롯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이런 토대 위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연구 분야와 주제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 성과를 검색한 후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로 연구 목록을 정리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내의 제주도 연구라는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고, 필자가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제주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전부 검토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분야별 하나의 주제로 연구 성과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등 4개의 분야별로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주제 대상별로 제일제주인 연구, 제주4

· 3 연구, 오키나와(沖縄)에서의 제주 연구, 박사 논문 등은 앞의 4개 분야별 연구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분류 정리하였다. 이처럼 필자가 임의적 판단 하에 연구 목록을 8개 항목으로 대분류한 것은 앞으로 제주 주제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주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연구 자료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이다.¹⁾ 특히 재일제주인 연구와 제주4·3 연구는 최근 제주도 연구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오키나와에서의 제주 연구는 오키나와와 제주 상호 간의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과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논의 대상의 연구 목록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한 후 분석 대상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필자가 이용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일본에서 최대의 학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정보학연구소의 NII 학술정보내비게이터(CiNii)²⁾와 국립국회도서관³⁾이며, 여기에서 키워드 ‘제주(濟州)’⁴⁾, ‘탐라(耽羅)’로 검색한 후 정리하였다. 이곳에서 검색된 연구비조성사업 연구보고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학연구비조성사업DB(이하 KAKEN)⁵⁾를 활용하였다.

1) 예를 들어 한국의 학술정보 KISS처럼 일본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가 분야별 혹은 주제별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필자가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제주 관련 연구 목록을 한국 학술정보 분류 방법에 맞춰 정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2) CiNii : <https://ci.nii.ac.jp/>

3) 국립국회도서관 : <http://www.ndl.go.jp/>

4) 일본어 한자 표기 제주(濟州)가 아니라, 한국의 한자 표기 제주(濟州)로 검색해도 편수는 같다.

5) 과학연구비조성사업DB : <https://kaken.nii.ac.jp/ja/index/>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가 교부한 과학연구비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연구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I. 제주 관련 연구 검색 및 분류 결과

국립정보학연구소의 CiNii는 일본의 논문, 대학도서관의 서적, 일본의 박사 논문 등으로 분류하여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 잡지기사, 잡지, 신문, 지도, 화고서(和古書), 박사 논문, 영상자료, 전자자료, 기타 등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술지를 보통 잡지라고 표현하고 있어 국립국회도서관의 학술지 논문은 잡지기사 범위에 포함시켜 제공하고 있다.

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주’, ‘탐라’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CiNii에서 제주 관련 자료는 논문 1,064건, 도서 756건, 박사 논문 42건으로 총 1,862건이었다. 이 중에서 한국 서적, 역서, 일반 잡지, 기타 불명의 자료 등을 제외시켜 논문 522건(박사 논문 34건 포함), 도서 76건, 기타 문헌 153건 등 총 751건을 논의 대상 자료로 했다. 한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주 관련 자료는 총 1,790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일반 잡지, 신문, 지도, 전자자료 등을 제외시켜 잡지기사 676건, 도서 585건, 박사 논문 42건 등 총 1,303건을 정리 분석한 결과, 논문 407건(박사 논문 34건 포함), 도서 99건, 기타 문헌 103건 등으로 총 609건을 논의 대상 자료로 삼았다. 기타 문헌에는 도서와 잡지 등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⁶⁾

검색한 자료는 필자의 임의적 판단 하에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 등 2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즉 학문 분야별 분류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고, 주제 대상별로는 제일제주인, 제주4·3, 오키나와에서의 제주 연구, 박사 논문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실 연구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분류와는 달리 다른 분야 혹은 주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6) 제주 관련 연구 자료의 검색 기간은 1945년 해방 후에서 2018년 5월말 까지로 했다.

CiNii와 국립국회도서관의 연구 문헌자료를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로 정리 분석하고, CiNii와 국립국회도서관의 중복된 연구 문헌자료와 그 외 자료를 하나로 합치면 <표 1>과 같이 총 826건이다. 이 글에서는 총 826건을 논의 대상 자료로 이용하여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 연구 동향을 정리 분석하였고, 문헌별로는 단행본, 학술지, 기타 자료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학술지는 학회 및 연구소의 학술지, 대학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이며, 단행본은 일반도서,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자료는 연구보고, 학술잡지, 기관지, 잡지, 발표 요지, 문예지 등에 수록된 제주 관련 자료들이다.

상기의 키워드 ‘제주’와 ‘탐라’로 검색한 총 자료 건수에 비해 논의 대상의 자료 건수가 훨씬 적은 이유는 연구 주제명만으로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이다. 즉 연구 주제명에 제주와 탐라가 포함된 자료는 내용 파악이 가능하여 논의 대상으로 했으나, 본문 안에 제주 혹은 탐라 관련 내용이 게재된 학술지 논문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행본인 경우, 수록된 논문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 도서명에 제주가 포함되지 않아도 논의 대상 자료로 삼았다.

<표 1> CiNii / 국립국회도서관 제주 관련 연구 목록 건수

(단위: 건수)

학술정보 분야별, 주제 대상별	CiNii				국회도서관				CiNii/ 국회 도서관 자료 합계
	단행본	학술지	기타 자료	합계	단행본	학술지	기타 자료	합계	
인 문 학	16	159	30	205	26	108	24	158	220
사 회 과 학	33	102	36	171	38	83	29	150	193
자 연 과 학	1	128	49	178	8	99	16	123	196
재일제주인	9	61	5	75	12	50	4	66	80
제주 4·3	4	27	24	55	4	25	24	53	64
오 키 나 와	5	11	1	17	6	8	1	15	21
박 사 논 문		34		34		34		34	34
기 타	8		8	16	5		5	10	18
합 계	76	522	153	751	99	407	103	609	826

Ⅲ. 학문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 연구 동향

이 장에서는 필자가 검색한 자료들을 임의적 판단 하에 학문 분야별과 주제 대상별 등 2개의 항목으로 대분류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하겠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연구 시기, 주제와 주요 내용, 문헌 구분 등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인문학 분야

제주도 연구 관련 인문학 분야는 총 220건이다. <표 2>와 같이 연대별, 문헌별, 주제별 내용을 보면 연대별로 점차 연구 성과가 많아지고, 문헌별로는 학술지 연구 논문이 많고, 연구 주제로는 민속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과 생활문화 환경이 민속학적 측면에서 많은 학술적 주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970년 현용준 선생이 일본인류학 학술지 『민족학 연구(民族學研究)』에 발표한 「제주도의 무속: 그 형식 의례에 보이는 신앙복합(濟州島の巫俗: その儀礼形式に見える信仰複合)」이라는 제주도 무속 연구 논문은 일본의 민속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의례, 굿, 무가 등 다양한 주제로 제주도의 무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연대별 인문학 분야 연구 동향(1948년~2018년)⁷⁾

(단위: 건수)

연대별	주제별		역사	문학	민속	구비 문학	방언	기타	소계	합계
	문헌별									
1940	단행본									1
	학술지	1						1		
	기타									
1950	단행본									4
	학술지	2		1				3		
	기타				1			1		
1960	단행본									7
	학술지	3			2	1		6		
	기타			1				1		
1970	단행본	1		1	1			3		13
	학술지			7		1		8		
	기타		1	1				2		
1980	단행본			4				4		18
	학술지	4	1	8		1		14		
	기타									
1990	단행본	1		1	1			3		24
	학술지	6	1	6	1	1	1	16		
	기타		5					5		
2000	단행본	2	2	6				10		99
	학술지	18	3	38	3	4	5	71		
	기타	11		3			4	18		
2010	단행본	2	3	3	2		1	11		54
	학술지	1	3	28	4	1	3	40		
	기타	1		2				3		
합계		53	19	110	15	9	14	220	220	

7) <표 2> 분석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분량이 많아서 이 글에 실지 못했다. 제주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발표문(<http://www.jejustudies.or.kr/board03/list.asp>)에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46~256쪽 참조 바람.

다음은 인문학 분야의 연구 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민요와 전설, 신화 등 구비문학을 비롯하여 특히 민속 연구에서는 영등굿과 신굿, 사령 의례 등 민간신앙 연구와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표류와 표착에 관한 연구와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민과 교류 속에 제주도 관련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인문학 분야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역사	원과 제주 역사, 조선시대 제주 성곽,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민과 교류, 제주도민의 해난과 표류, 탐라정벌, 지식묘, 조선시대 진상물과 해상 수송, 문헌사료에서 본 제주도의 11세기 분화, 16세기 이전 일본에서의 제주도사, 일본과의 교류, 18세기 제주지역의 흉년과 진휼책, 조선 근세 제주도 표류민, 제주도 웅기, 17세기 말 제주도민의 베트남 중부 호이안 표착 사건, 탐라지도 속의 항구, 제주도민과 요나구니섬 사람과의 교류, 제주도 표착선, 탐라의 왕족, 일본서기의 탐라왕자명, 고대탐라의 역사와 일본
구비문학	민요, 속담 비교 고찰, 서복전설, 제주도 개벽신화의 삼형형 신화와 자청비 설화, 옛날이야기, 제주도의 천지왕본해, 전통음악교육과 민요, 탐라국의 신화, 탐라신화의 변용, 탐라삼성시조신화
문학	동아시아의 민속학적 제주도 문화, 베트남과 제주도 문학 비교, 유배문학, 일본제국시대의 제주문학, 아시아·태평양 전쟁 하의 제주도 문학자들, 김석범 관련 문학론
민속	의례와 신화, 제주도 무가의 전승과 구조, 우석목의 주술성, 무속 연구, 해녀 민속, 민속 음악, 상례, 아이들 노래, 민속예능 비교, 배수호신, 조상제사, 일한 위패제사 비교, 촌락제사 비교, 서복 전승, 제주와 오키나와 내방신 비교, 마을제사, 사신 신앙 비교, 내방신의례, 생활문화, 생업 민속, 신앙, 석상, 영등굿, 사령의례, 동아시아의 여성 신앙과 생활, 방목 민속, 제주도의 굿, 제주도와 이키노섬의 종교 관념 비교, 제사와 무속 신앙, 제주도의 해녀어(漁)와 어구의 제상(諸相), 원시 신사, 무속과 무가, 용왕궁, 제주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 제주도의 신굿, 입춘 의례의 복원과 민속의 변화, 당과 우타키, 어로민속 비교, 식민지시대 제주도의 신사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방언	탐라 명칭과 제주방언과의 관계성, 제주방언의 접두사, 제주시내 지명, 방언의 모음 음향 분석,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문 양상
기타	제주도의 바람과 돌, 제주에서 일본어 사용, 제주도에서의 일본 귀화자의 언어 사용, 일본어 교육교재 연구 수업, 문화유산탐방, 제주 사회에서의 일본어 위치

2. 사회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주도 관련 학술적 연구는 후술하는 재일제주인 연구에서 제시한 1951년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선생의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동경의 재일제주인 연구’에서 비롯되고 있다(泉靖一, 1951). 이후 이즈미 세이치 선생은 1935년과 1965년 제주도를 두 차례 방문 조사하고, 그 연구 내용을 『제주도(濟州島)』라는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하였다(泉靖一, 1966). 이 단행본에는 제주도의 지질, 동식물 분포 등 전반적인 자연 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신화와 역사, 사람들의 의식주를 비롯해 가족, 여성의 노동력, 어업, 목축, 친족, 계, 청년회, 부인회, 종교, 언어, 풍습, 상례·혼례·제례, 민구 등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재일제주인 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30년에 걸쳐 연구한 내용이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1970년대부터는 한일공동학술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인류학, 사회학, 관광학, 지리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연구들이 계속 행해져 왔다. 특히 릿쇼대학(立正大學) 지리학교실에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에 걸쳐 제주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도의 지역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간행하였다(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島學術調査団 編, 1988).

한편 1998년 학술잡지 『지리(地理)』는 특집으로 제주도와 일본의

연구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제주도의 현재, 조선시대 제주도의 토지 매매, 19세기 제주도민의 해상 활동, 제주도의 어법, 제주도인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 현황 등 제주 관련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제주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橋本壽資, 1998).⁸⁾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의 과학연구비 조성사업(KAKEN)에 의한 지역 사회의 변용과 주민자치, 섬 지역의 에코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주제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사회과학 분야의 제주도 관련 연구는 총 193건으로 단행본 52건, 학술지 103건, 기타 38건 등이며, 연대별로 보면 <표 4>와 같다. 연구 주제는 <표 5>와 같이 전술의 이즈미 세이치 선생의 연구 주제와 더불어 관광개발계획, 관광 숙박시설, 공업 분포와 업종, 상업 중심지 시스템, 별동형 민가의 사회적 의미, 제주도의 생활세계, 해녀의 공동체 생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검토,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올레 등 다양한 주제로 제주 지역 사회의 현황을 논하고 있다.

<표 4> 연대별 사회과학 분야 연구 동향(1966년~2018년)⁹⁾

(단위: 건수)

문헌별 연대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단행본	1	8	3	6	22	12	52
학술지	1	5	4	19	41	33	103
기타		1		4	16	17	38
합 계	2	14	7	29	79	62	193

8) 1998년 학술잡지 『지리(地理)』에는 특집으로 제주 관련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인문학, 사회과학, 기타 등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지리(地理)』라는 잡지 성격상 그리고 제주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9) <표 4>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56~266쪽 참조 바람.

<표 5> 사회과학 분야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사회 · 문화	<p>제주도의 자연과 문화, 제주도 주민의 지문(指紋), 제주도의 가족과 친족, 농촌의 가족과 제의, 제주도 해녀 집락, 지역 사회의 제문제, 제주도 잠수 집락의 변모, 제주도 지역 연구, 제주도 농가구조의 변화, 제주도 해녀 작업 실태,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가족과 사자 제사, 제주도 사람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제주도 생활세계의 창조와 실천, 제주도 잠수 공동체 생활과 일, 한국과 오키나와의 사회와 문화, 바다 자원을 둘러싼 해녀들의 싸움, 제주도 감물염색 문화, 변모하는 동아시아의 가족, 식민지주의와 인류학, 제주도와 오사카에서 본 일한 관계, 제주도 서귀포시 사례를 통한 지역 축구 활동의 내셔널, 제주도에서의 축구 보급 과정, 제주도 묘지의 별초를 통한 토지와 사람과의 관계, 중심과 주변 관점에서 본 일한 사회의 제상(諸相), 제주도에서의 이동에 따른 정주와 비정주의 위상, 이키·쓰시마·제주도를 둘러싼 자원인류학, 제주시의 평생학습,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 제주도 행원마을 생활공동원리의 가능성, 아미미오시마 출신자와 제주도 출신자들의 촌락공동체 지역성과 도시 이주, 제주도 마을공동묘지의 설치와 이용</p>
관광	<p>제주도 관광개발 계획, 제주도 관광 숙박시설의 입지 형태, 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 숙박산업의 개발 방향,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의 개발과 지역 주민 의식, 제주도 관광 상품 개발 동향, 제주도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레저 스포츠 개발과 내발적 발전론, 제주도 성읍 전통 민속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민가의 전용 연구, 후쿠오카와 제주도 사례를 통한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도시 관광의 활성화, 관광과 언어 관점에서의 제주도 언어 경관, 제주관광의 활성화 방안, 관광지에서의 언어적 만남과 언어 관리 실태</p>
지리	<p>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 별동형 민가의 성립,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제주도 연구,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경영 과수원 전개,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전통적 집주 공간 구성의 비교 연구, 제주도의 해수욕장</p>
산업 · 행정 ·	<p>제주도 상업 중심지 시스템, 제주도 농업 분포와 업종, 제주도의 자연과 산업, 제주도 주민운동과 그 의미, 지역 사회의 변용과 주민 차치, 감귤 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각 차이에 따른 실태 조사, 제주국제</p>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경영	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수입 자유화에 따른 제주도 감귤산업의 산지 대응, 구조 조정에 따른 제주도의 감귤 생산, 제주특별자치도 조사 보고서, 제주도 감귤생산의 농업 산업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한국 지방 자치의 실험, 제주도 감귤생산·유통의 구조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제주도의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책, 일본 통치시대 제주도의 일본인 경영 과수원, 제주도 무형문화재와 행정의 관계, 제주도 사례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지방기록물 관리의 현상과 비교,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준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에 참가한 한국인 여행자의 소비동향과 경제 효과, 일본 통치시대의 제주도의 수산가공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자치구조의 재편, 아시아 도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오사카와 제주도 항로 경영과 제주도 민족 자본
복지 · 심리	제주도 고령자 복지, 제주도 아이들과 용돈에 관한 생활세계, 제주도에서 동북아시아 사회복지 모델 찾기
기타	제주도 학술조사, 제주도 세계의 현재와 과거, 조선총독부 생활실태조사, 다마대학의 아시아 다이너미즘 제주도 연구 시찰

3. 자연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의 제주도 관련 연구는 총 196건으로 단행본 9건, 학술지 134건, 기타 53건이다. <표 6>처럼 연대별로 보면, 1960년 이후 꾸준히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각론의 학술 논문의 연구 성과가 많다. <표 7>에서 보듯이, 연구 주제는 건축, 환경, 농업, 곤충, 지질, 동식물, 기후, 보건, 수산, 가축, 조류, 복식, 염색 등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는 제주도 성읍민속촌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감귤 중심의 여러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음을 볼 수 있다.

<표 6> 연대별 자연과학 분야 연구 동향(1947년~2017년)¹⁰⁾

(단위 : 건수)

연대별 문헌별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합계
단행본				1		2	4	2	9
학술지	1	2	7	10	13	43	39	19	134
기타				4	9	9	28	3	53
합계	1	2	7	15	22	54	71	24	196

<표 7> 자연과학 분야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건축	제주도 민가, 조선시대 제주도 주택, 제주도 전통 민가의 공간 구성, 제주도 주거의 공간 구성, 제주도 성읍 집락촌의 온돌, 제주도 성읍 민속촌 민가의 배치 형태, 풍수사상에 의한 제주 성읍 집락촌의 집주 공간 구성, 제주도 성읍민속촌 보존 가옥의 생활방식과 보존 문제, 제주 성읍민속촌의 역사적 민가의 거주 방법, 제주도 성읍민속촌과 울릉도의 민가의 초가 구성과 유지 관리
환경 위생	제주도 해녀의 생리학적 고찰, 제주도계의 말레이 사상충 연구
지질	제주 화산섬 지질 연구, 제주도 화산암류의 암석화학, 제주도 화산의 지질학적·암석학적·고자기학적 성격, 제주도의 용암동굴, 제주도의 화산 활동사, 제주도 만장굴 쌍둥이 돌기둥의 화학 분석, 제주도 만장굴 내의 화학 분석과 전자현미경 사진, 제주도의 풍토와 지질, 제주 화산섬의 현무암과 만장굴의 용암 분석, 제주도 단성화산군의 화산 목록, 제주도 화산 형성 과정과 용암동굴의 초기 형태
농업	제주도의 감귤녹화병, 감귤 연구, 제주도의 감귤 현황, 제주도 감귤 발전의 장래 구상
수산	9월 제주도 어장의 해황과 어황, 제주도에서의 복어류와 어업 상황, 제주도의 수산 양식업, 제주도의 광어 양식 현황, 제주도의 패류

10) <표 6>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66~276쪽 참조 바람.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동식물	제주도의 이끼류, 제주도의 식물 채집가, 제주도의 담수치삼기장류, 제주도의 뽕나무류의 분류학적 연구, 제주도 고사리류 연구, 제주도의 소형 포유류 상황, 제주도 한라산의 아고산침엽수림, 제주도 삼나무림 지위에 따른 양분 특성, 제주도 한라산과 쓰시마 산지의 산철쭉 군락 연구, 한국·제주도의 조엽수림의 생태학적 특징과 전통적 유지 관리법, 제주도의 잡초와 귀화 식물, 제주도 한라산의 돌매화 군락에 관한 식물 사회학적 연구, 제주도 한라산의 식물과 자연, 제주도의 황근과 갯대추의 분포와 생태, 제주도의 식물 목록, 제주도의 식물권과 해안 식물
가축 생리	제주도 면양의 간질증 발생, 제주도산 가축의 기생충병의 발생 상황과 특이성, 제주 재래마의 혈액단백다형에 관한 연구, 제주 토종닭의 혈액단백다형에 관한 연구, 제주마의 친자감정의 초위성체 해석에 의한 유전적 특징과 다형
곤충 · 조류	추자군도의 조류 조사, 제주도의 딱정벌레류 연구, 제주도의 조류 조사, 제주도·쓰시마·이끼의 방아깨비 집단의 과잉 염색체 연구, 제주도의 나비류 연구, 제주도 원앙새 무리의 월동, 제주도의 방아벌레 연구, 제주도의 꿀벌 연구
복식 · 염색	제주도 시왕맞이의 무속 복식, 제주도 감물 염색의 특성
기타	제주도의 명수, 제주도 특별 선박 등록 제도의 현상과 과제, 제주도 남부의 온천, 기후 변동에 의한 제주도 주변의 열대성 유해 와편모조류 출현, 관광의 섬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물 문제

4.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던 재일한국인¹¹⁾은 1945년 해방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기반 하에 기독교계나 각종 단체의 여러 모

11) 재일한국인에 대한 용어는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코리아, 재일한인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재일한국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임이 생겨나면서 일본 사회에서 민족차별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지가 사회운동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임영언, 2013:94-95).

이런 사회적 운동은 학술적 연구의 토대가 되어 1951년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에 의한 동경의 재일제주인 연구가 시작되는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서 재일한국인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전된다. 재일제주인 연구도 재일한국인 연구 속에 포함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 주제로 ‘재일제주’ 혹은 ‘제주도’라는 용어가 대두된 것은 1979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¹²⁾ 이 글에서는 재일한국인 연구에 포함된 제주 관련 연구 자료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연구 자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재일제주인 연구 자료가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는 KAKEN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일제주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 한편 후술하는 박사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한 유학생에 의한 박사 학위 논문이 대두하면서 재일제주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오사카 지역의 연구자들은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재일제주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생활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 과정 하에 재일제주인의 도일과정착 과정, 사회생활, 민족교육, 가족, 고향 제주도와의 관계 등 재일제주인의 삶의 궤적이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 2012).

<표 8>과 같이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는 총 80건으로 단행본 14건, 학술지 61건, 기타 5건이다. 연구 주제는 재일제주인의 생활사, 재일제주인의 생활문화적응의 보건사회학적 측면, 재일제주인 출신자의 아이덴티티 변용, 경제활동과 고향의 기부, 재일제주인 사회의

12) 1979년 강씨 일가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만든 단행본. 姜さん一家を支える会, 1979, 『済州島から猪飼野へ：姜さん一家に日本在留を!』

문화 변용, 재일제주인의 방언, 밀항과 수용소 생활, 근대 오사카와 제주도 향로, 경계인으로서 제주도인, 제주도 출신 여성들의 의례, 재일제주도 출신 고령자의 복지 등으로 인류학적·사회학적·역사학적 관점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8> 연대별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 동향(1951년~2016년)¹³⁾

(단위: 건수)

연대별 문헌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단행본			1	1	5		7	14
학술지	1			1	4	23	32	61
기 타					1	3	1	5
합 계	1		1	2	10	26	40	80

<표 9> 재일제주인 관련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언어	오사카 거주 재일제주인 사용자 집단의 일본어 접촉 현상, 재일제주인 1세 제주도 방언 사용자의 오사카 방언 억양 습득
사회 · 문화	재일제주인의 의례 생활과 사회 조직, 재일제주인의 생활 문화와 적응, 재일제주인의 아이덴티티의 변용 과정, 관동 지역의 재일제주도 출신자들의 생활과정, 오사카 거주 제주사람과 일본과의 민족 간 관계, 제주도 사람의 조상제사와 문화변용, 재일제주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동태, 해방 직후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사 조사, 디아스포라로서 제주도의 해녀, 오사카 이쿠노쿠의 제주 승려 활동, 재일제주도 출신 고령자의 복지 문제, 근대 일본과 조선향로 중 오사카와 제주도 향로
이주 · 여성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밀항의 네트워크, 제주도에서 이카이노로 이주한 여성들, 4·3사건을 체험한 재일제주인 여성, 오사카 제주출신 여성들의 무속 실천과 전승, 오사카 거주 제주도 출신 여성들의 방직 노동과 생활
경제 기부	재일제주인의 고향으로의 기부, 일한 경계를 초월하는 제주 행상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현황과 경영 실천

13) <표 8>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76~280쪽 참조 바람.

5. 제주 4·3 관련 연구

일본에서의 제주 4·3 관련 사회적 활동은 제주도에서 4·3이 급기어 시절 당시에도 김석범 선생의 문학적 활동과 4·3 관련 단체를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번역서 단행본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서 분류 대상 목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동경의 신간사(新幹社)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제민일보의 『제주도 4·3사건』 시리즈와 그 외 4·3 관련 번역서 단행본은 일본 사회에 4·3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제주 4·3과 관련해서 인권과 평화를 비롯하여 오키나와와 대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학술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과 같이 제주 4·3 연구물은 총 64건으로 단행본 10건, 학술지 27건, 기타 27건 등이며 2000년을 정점으로 다수 발간되었다. 제주 연구 주제 내용은 <표 11>과 같이 문학적 측면에서는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에 나타난 4·3사건을 비롯하여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4·3항쟁 특별법 제정 의의, 4·3사건과 5.10 단독 선거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국가폭력과 여성 인권 문제, 제주4·3과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과 과거 청산 문제, 제주4·3과 미국의 정책 등 현시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4·3 관련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 연대별 제주4·3 관련 연구 동향(1973년~2018년)¹⁴⁾

(단위: 건수)

연대별 문헌별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단행본		2	1	4	3	10
학술지	4		1	10	12	27
기 타			4	20	3	27
합 계	4	2	6	34	18	64

〈표 11〉 제주4·3 관련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역 사	제주도 4·3사건은 무엇인가, 제주도 4·3사건 봉기, 제주4·3항쟁논의 현단계, 제주4·3사건 연구, 제주도 4·3사건과 초토화 작전, 제주4·3항쟁 특별법 제정의 의의, 제주도 4·3사건과 일제 지배, 제주4·3사건과 국제연합 감시 하의 5월 10일 단독 선거
문 학	제주도 4·3사건과 재일조선인 문학, 김석범과 제주 4·3사건, 제주도 4·3사건의 기억과 문학, 김석범 화산도에 그려진 제주 4·3사건과 의미
사 회 · 정 치	제주4·3을 중심으로 한 국가 폭력과 성(性)의 정치학, 제주4·3항쟁 진상규명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그리고 과거 청산, 제주 4·3과 제노사이드, 제주도 4·3사건과 군정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 제주4·3 관련 국가유공자 위령제의 변화와 의미,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과 대량 학살 과거 청산, 제주 해군 기지와 4·3 과거 청산, 조선의 단독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제주도 4·3사건, 제주4·3사건 미체험 세대의 표상
기 타	제주도 4·3사건 회상, 제주도 4·3사건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주도 4·3 기행

14) <표 10>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81~284쪽 참조 바람.

6. 오키나와에서의 제주도 관련 연구 동향

오키나와에서의 제주도 관련 연구 동향을 별도로 논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분야의 제주도와 오키나와 연구자들의 학제적 연구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연구자들은 두 지역에서 상호 간 현지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고찰함으로써 두 지역의 학술적 교류를 통한 비교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KAKEN에 의한 비교 연구는 류큐대학(琉球大學)과 오키나와국제대학(沖縄國際大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연구 성과로는 단행본 보고서 2건이 있다.¹⁵⁾ 분야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문화인류학의 물질문화, 사회조직, 구비전승, 민간신앙 등이고, 역사학의 고고학, 지역사 등이며, 경제학·경제지리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학제적 연구가 행해졌다. 그 밖의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시설 분포, 제주도의 토양 조사,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 유적 관련 연구 등 두 지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연구 조사 등 상호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표 12>와 같이 오키나와에서의 제주도 관련 연구는 총 21건으로 단행본 9건, 학술지 11건, 기타 1건 등이다.

15) 津波高志 研究代表(2001), 『環東中国海における二つの周辺文化に関する研究：沖縄と済州の'間地方'人類学の試み』, 琉球大学.

波平勇夫 研究代表者(2000), 『韓国全羅南道および済州島と沖縄の文化・社会の比較研究(1996~1998)』, 沖縄國際大学.

〈표 12〉 연대별 오키나와에서의 제주도 관련 연구 동향(1976년~2014년)¹⁶⁾

(단위: 건수)

문헌별	연대별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단행본	1			6	2	9
학술지		1	1	7	2	11
기 타					1	1
합 계	1	1	1	13	5	21

〈표 13〉 오키나와에서의 제주도 관련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역사 · 고고학	남도의 역사와 문화, 류큐와 제주와의 관계, 오키나와의 고려 기와 와 제주도 출토 고려기와와의 비교 연구, 제주도 고고학 기행,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 유적 보존과 활용 현상
사회 · 문화	한국 전라남도과 제주도과 오키나와 문화·사회 비교 연구, 환동중국해 주변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문화 연구, 제주도의 제사 분담,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무속세계 비교, 전라도·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주술 종교적 직능자의 성무과정, 일본 식민지시대의 제주도 주거문화와 여성의 생활공간, 제주와 오키나와·아마미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방 교류의 과거와 현재
지역개발 · 관광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지역 발전, 제주특별자치도·진도군의 관광 특성과 관광 시설 분포
환경 · 토양	제주도 사례를 통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제주도 토양의 이화학성(理化學性)

16) <표 12>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84~285쪽 참조 바람.

7. 제주도 관련 박사 논문 연구 동향

일본에서 제주도 관련 박사 논문은 총 34건으로 역사학 1건, 민속학 2건, 사회과학 12건, 자연과학 15건, 재일제주인 4건 등이다. 이 박사 논문들을 연대별과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을 분류 정리하면 <표 14>, <표 15>와 같다.

1980년대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 논문이 많아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박사 논문이 많은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과학 분야와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 논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일한 유학생들 및 일본인 연구자들이 사회과학 분야와 재일제주인 주제를 이슈화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시사한다.

<표 14> 제주도 관련 박사 논문 연구 동향(1962년~2016년)¹⁷⁾

(단위: 건수)

연대별 주제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역사학				1			1
민속학			1	1			2
사회과학		1		4	5	2	12
자연과학	1		7	2	2	3	15
재일제주인				2	1	1	4
합 계	1	1	8	10	8	6	34

<표 15> 제주도 관련 박사 논문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역사학	고대 일본의 대외 인식과 교통(8세기 일본과 탐라의 교통 내용 수록)
민속학	제주도 무속, 제사예능

17) <표 14>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85~286쪽 참조 바람.

주제별	연구 주요 내용
사회과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제주도 주민의 지문(指紋), 일본과 주변 아시아의 전통적 선박, 한일 양국의 제주도 해녀의 이동과 정착, 한국의 관광 개발과정과 환경안전, 생활세계의 창조와 실천, 이야기를 통한 원풍경과 심리적 기능, 레저스포츠 개발의 사회학적 실증연구, 제주도의 감물문화, 제주도의 현대사,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제주도 국제교육도시 계획, 현대분쟁사회의 대량사의 의미를 둘러싼 정의 회복에 대한 시도와 로컬 리얼리티
자연과학	제주도민의 인구학적 사회위생학적 연구, 화산 연구, 돼지 낭충, 제주도 주변 해역 어장 해양환경, 지구관측 위성화성데이터를 이용한 토지이용 평가와 응용, 제주도 재래마의 혈액학적 면역적 연구, 제주도의 삼남무 육성의 영양환경, 제주도 식생, 지질 연구, 제주의 플로라 다양성
제일제주인	20세기 제일제주인 생활 과정, 제일조선인 에스니시티, 이주자의 고향과 아이덴티티, 오사카 제일코리아안 고령자 복지

8. 제주도 관련 기타 연구

여기에서는 연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상기의 분류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1970년의 이즈미 세이치와 김석범의 대담을 비롯하여 제일제주도유학생회 편 논문집, 제주도 방문기, 제주도의 어머니들의 사진집, 제주도에서의 생활 등 제주도를 둘러싼 일상적 모습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표 16> 연대별 제주도 관련 기타 문헌들(1970년~2017년)¹⁸⁾

(단위: 건수)

연대별 문헌별	1970	1980	1990	2000	2010	합 계
단 행 본	1	2	2	2	2	9
기 타	1	2	2	4		9
합 계	2	4	4	6	2	18

18) <표 16> 분류 대상의 연구 목록 자료는 각주 7)에서 제시한 2018년 제4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86~287쪽 참조 바람.

IV.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 말했듯이 논의 대상의 연구문헌 목록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에 한해서 검색하고 정리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로 ‘제주’, ‘탐라’라는 연구 제목이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외에도 제주도 관련 연구 자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학 연구소의 제주도 학술조사를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다각적 분야에서 한·일 연구자들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교류와 비교 연구가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탐라문화연구소 공동 주최로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된 바가 있다. 이 자료집에는 양성중 선생이 소개한 <재일제주인 연구관련 자료 목록>(梁聖宗, 2005:208-227)과 무라가미 나오키(村上尚子)가 <일본에서의 4·3관련 대표적인 출판물> 12권을 소개하고 있다(村上尚子, 2005:24). 두 발표에서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 동향을 단면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심포지엄에서 소개되지 않은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제주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비교 연구가 심도 있게 행해져 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재일제주인과 제주도 관련 연구자들은 동경에서 1985년 ‘탐라연구회(耽羅研究會)’를 결성하여 학술 잡지 『제주도(濟州島)』와 회지 「탐라연구통신(耽羅研究通信)」을 발간했고, 오사카에서는 2004년 ‘오사카제주연구회(大阪濟州研究會)’를 창립하여 꾸준히 연구회를 개최해 오다가 2011년에는 학술 잡지 『제주도연구(濟州島研究)』를 발간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1987년 일본 학자 토리고에

켄자부로(鳥越憲三郎) 선생을 중심으로 오사카경제법과대학(大阪經濟法科大學) 아시아연구소 내에 관서 지역에서의 제주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 ‘일본탐라학회(日本耽羅學會)’를 창립하고 학술지 『탐라(耽羅)』를 발간하는 등 일본에서 제주도 연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아쉽게도 현재 학술 잡지 발간과 연구회 개최 등의 연구 활동이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수필, 한국에서 출판되거나 발표된 제주 관련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 소개, 시사 자료 등을 수록하여 제주 지역 사회의 모습과 연구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제주학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과제로서 일본에서의 제주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 연구 자료들을 검색하고 수집하면서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는 달리 연구 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확인 가능한 몇 편의 자료는 대부분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자료들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국외 제주도 연구 자료들의 고찰을 통해 더욱 다각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혹은 시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번역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도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단행본을 중심으로 번역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몇 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인 조직과 방법을 마련하여 연속적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일본을 포함하여 국외의 제주도 연구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활용 가능도록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셋째, 각 학문별 분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의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학으로서의 ‘제주

학'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학'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간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매년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후세대들이 제주학 관련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V. 나오며

이 글에서는 일본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 가능한 제주 관련 연구 자료들을 대상으로 학문 분야별, 주제 대상별, 연대별, 문헌별, 연구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학문 분야별로 보면 인문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연구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연대별로는 자연과학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개별 연구 혹은 대학 연구소 중심의 제주도 연구에 의존하던 연구 방법이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 혹은 제주도의 연구자들 간의 공동 연구 활동에 의해 더욱 많은 연구 성과의 결과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별 연구 성과는 제주의 역사와 고고학, 제주의 자연 환경과 생활문화, 민속 문화, 지역 개발과 관광, 재일제주인, 제주4·3 등 인문적·사회적·자연적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주제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별로는 학술지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상기의 학술정보서비스 이외의 학술정보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제주도 연구 자료를 전부 검색하지 못했다. 또한 검

색한 연구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논의 대상의 연구 목록들이 학문적 연구 성과로서 적절한 범주의 자료인가에 대한 의문과 아울러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은 필자의 과제로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 상세하게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싶다.

끝으로 추후 ‘제주학’이 지역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외의 제주도 연구 자료 수집과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18,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방 이후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사)제주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234-287.
- 임영언, 2013, 「제일코리안 연구에 관한 국내외 자료 고찰」, 『제일한국인 연구의 오늘과 내일』, 제2회 제일제주인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제일제주인센터, 81-111.
- 제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 2012, 김경자 옮김 『제일제주인의 생활사1 안주의 땅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在日제주인의 삶과 자료집』.
- 橋本寿資, 1998, 「濟州島世界」, 『地理』 5月号, 古今書院.
- 梁聖宗, 1992, 「日本における濟州島研究の現況」, 『濟州島』5, 耽羅研究會, 21-60.
- _____, 2005, 「在日濟州人研究の現況」, 『在日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5-247.
-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島學術調査団(編), 1988, 『韓国濟州島の地域研究 : 學術調査報告書』, 『立正大学日韓合同韓国濟州島學術調査団』, 제주도 학술제마나.
- 津波高志 研究代表, 2001, 『環東中国海における二つの周辺文化に関する研究 : 沖縄と濟州の'間地方'人類学の試み』, 琉球大学.
-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大学出版会.
- 泉靖一(他), 1951, 「東京における濟州島人」, 『民族學研究』16(1), 日本民族学会.
- 村上尚子, 2005, 「4・3時期の「在日濟州人」-濟州島民の渡日と在日朝鮮人社会」, 『在日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4-65.
- 波平勇夫 研究代表者, 2000, 『韓国全羅南道および濟州島と沖縄の文化・社会の比較研究(1996~1998)』, 沖縄國際大学.
- 과학연구비조성사업DB, <https://kaken.nii.ac.jp/ja/index/>
- 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
- 국립정보학연구소의 NII 학술정보내비게이터(CiNii), <https://ci.nii.ac.jp/>

Abstact

Achievements and Tasks of Jeju Island Research in Japan

Kang, Kyung-Heui*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achievements and remaining tasks of Jeju researches in Japan since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 materials used for the research on Jeju were searched under the keywords "Jeju" and "Tamla" from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Scholarly and Academic Information Navigator(CiNii) in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of Japan, National Diet Library, and Database of 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KAKEN). I organized and analyzed the research list by categorizing it into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and others, and also by dividing them into topics such as Zainichi Jeju Islanders, Jeju 4.3 studies, Jeju studies in Okinawa, and Ph.D. thesis. Based on the research list categorized in this manner, this paper examined the Jeju-related research trends in Japan by analyzing the major research contents according to their periods, literature formats, and topics.

The biggest number of researches has been in humanities in terms of discipline. In terms of topics, research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on overall themes surrounding cultur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history and archeology of Jeju, the natural environment and ways of life in Jeju, folk culture, local

* Researcher, Jeju History & Culture Institute

development, tourism, economy, Zainich Jeju Islanders, and Jeju 4.3. In terms of periods being studied, in areas other than natural science, there has been remarkable research progress in period after the 1990s. Academic journal article is the most dominant literature format.

In order for “Jeju studies” to be further developed as an area stud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database of Jeju-related researches abroad. It is also needed to translate and introduce academically advanced or timely works, and to build a network of scholars. Constructing such research environment will be a great help for future generation of researchers to conduct systematic and continuous research on Jeju Island both at home and abroad.

Keywords: Jeju Island Research in Japan, Tamla, NII Academic Information Navigator(CiNii), National Diet Library, Database of 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KAKEN)

교신 : 강경희 63273 제주도 신산로15길 39-6
(E-Mail: jabikang@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7. 22
심사완료일 2018. 08. 05
게재확정일 2018. 08. 06